

# 2018년 3월호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 이광훈 목사(Colonial Beach UMC, VA)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종말의 삶

### 찬송:

461 장 (통 519 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539 장 (통 438 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333 장 (통 381 장) 충성하라 죽도록

### 여는 질문

최근에 누군가를 대접한 일이 있었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은 일이 있었나요? 각각 그 때 기분이 어떠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접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도 서로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함으로써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 본문: 베드로전서 4:7-11

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 본문 이해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 곧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 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라는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는 "keep cool under any pressure", "어떤 압력, 즉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냉정 하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하겠지만, 반대로 기도하면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근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험클어진 삶을 바르게 정돈시켜 주십니다. 둘째,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열심’이라는 말은, 본래 달리기 선수가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서 골라인 앞에서 자기의 팔을 짝 내뻗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목표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셋째,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며 사는 삶입니다. 대접하는 일도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들을 집안으로 모셔 들여야 합니다. 평소예 대접을 잘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친절합니다. 유대인 속담 중에 “똑똑하기보다는 친절한 편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 낯선 자를 대접하는 것은 물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일이지만 결국은 자신을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끝으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가슴에 고이 간직해 두라고, 파묻어 두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에겐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것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재물도, 재능도, 지식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말씀 속으로

(1) 저자는 8절에서 사랑이 하는 일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8절)

(허다한 죄를 덮는 일입니다.)

(2)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는 일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 삶 속으로

(1)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이 어떠한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보고 당장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들추어내기보다는 일단 그 사람의 그 잘못된 행동 이면을 살펴보고 충분한 이해심을 갖고 그것을 품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알고도 상대방을 덮어주려고 할 때, 상대방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고백이 치료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허물을 폭로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모멸감과 죄책감을 안겨줌으로써 마침내 상대방의 마음을 더욱 사납고 폐쇄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2)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일을 하고서도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공로를 자꾸만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나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봉사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한 청지기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랑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암송 구절:** 베드로전서 4:7-8(한 주간 동안 암송구절을 암기하신 후, 다음 모임에서 서로 확인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녀와 나눔**(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소그룹 나눔을 진행하시면서 나눌 수 있는 질문입니다.)

(1) 친구의 허물(단점)을 덮어준 적이 있었나요? 왜 그렇게 했어요?

(2)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는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어디에서 왔나요?

# 2018년 3월호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 이광훈 목사(콜로니얼 비치 연합감리교회, VA)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사랑의 삶

### 찬송:

221 장 (통 525 장) 주 믿는 형제들

600 장 (새 242 장) 교회의 참된 터는

620 장 (여기에 모인 우리)

### 여는 질문

각자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내려 보십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1. 귀하게 여기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 2.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agape) 사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카리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 본문: 요한일서 4:10-21

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4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7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 본문 이해

저자는 16 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God is love)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 – 선함(goodness), 참 됨(truthfulness), 신실함(faithfulness) 등과 같은 – 에 속하는 또 하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nature)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 안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행동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당당히 “사랑은 여기 있다”고 외칩니다(1 절). 이와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즉,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만 합니다”(To know the God of love is to live the love of God). 물론 인간의 사랑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참고. 19 절).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사랑받았습니다(참고. 로마서 8 장 8, 10 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방식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믿음의 한 식구들은 물론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합니다(“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 장 44 절). 물론, 원수 사랑의 실천은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다고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능히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 말씀 속으로

(1)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9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2) 저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삶 속으로**

(1)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이민생활 중, 때로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2)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자신이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사랑을 베푼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푼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암송 구절:** 요한일서 4:16(한 주간 동안 암송구절을 암기하신 후, 다음 모임에서 서로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녀와 나눔**(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소그룹 나눔을 진행하시면서 나눌 수 있는 질문입니다.)

(1)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할 수 있나요?

(2) 최근에 사랑을 받은 일이 있었나요? 또한 사랑을 베푼 일이 있었나요? 그 때 기분이 어땠어요?

# 2018년 3월호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 이광훈 목사(콜로니얼 비치 연합감리교회, VA)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부요의 삶

### 찬송:

279 장 (통 337 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438 장 (통 495 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535 장 (통 325 장) 주 예수 대문 밖에

### 여는 질문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부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부요함이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부요함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봄으로써 삶의 진정한 행복은 어떤 것인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 본문: 요한계시록 3:14-22

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 같이 하리라

###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 본문 이해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는 금융과 재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곳에는 금광이 즐비했고, 기원 후 61 년경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에도 로마의 복구 원조를 사양하고 독자적인 힘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 곳은 의류 생산지로도 유명했습니다. 양모 중에서 흑양모가 유명해서 밉크와 같은 값비싼 옷들이 활기차게 매매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도시는 의학의 중심지로써 유명한 의사들이 많았고, 특히 안약의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는 부자 도시였고 당연히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유했습니다. 문제는 외형적으로 무척 부유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정반대 였다는 것입니다(17 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별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다면,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 과연 누가 진정 부요한 사람일까요? 우선, 주님께서 사 주신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의 수치를 알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피 흘려 만들어 주신, 구원의 흰 옷,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혀 주십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18 절, "... 흰 옷을 사서 입어 별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한 진정 부요한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양식이 있는 사람입니다(20 절, "...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결과로 영적인 전망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시력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의 눈에 바르는 일로 이루어집니다(18 절, "...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끝으로, 전정 부요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바로 걸보기에 화려하게 잘 갖추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20 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제발 문 좀 열어 달라고 사정을 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나를 문 밖으로 내몰고 그렇게 박대를 하느냐? 내가 들어가야 너희가 사는데, 왜 세상적인 부요만을 자랑하면서 너희 가운데서 나를 몰아내느냐?"고 한탄하십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정 부요의 삶을 살아갑니다.

#### 말씀 속으로

(1)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려 버리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16절)

(그들의 미온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2)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18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 환란과 시련속에서 단련되어 나온 믿음을 뜻합니다.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영적인 부요를 얻게 됩니다. 참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 삶 속으로

(1)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맞아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각자의 삶의 현 주소를 정확히 인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믿음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혹시 작은 것이라도 숨겨진 죄가 있다면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2)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외형적인 부요를 추구하는 일이 얼마나 복음의 진리와 멀리 떨어진 일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의 교회들이 회개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보다 물량주의에 빠져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일을 저버린 것 등을 회개해야 합니다.)

**암송 구절:** 요한계시록 3:20(한 주간 동안 암송구절을 암기하신 후, 다음 모임에서 서로 확인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녀와 나눔**(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소그룹 나눔을 진행하시면서 나눌 수 있는 질문입니다.)

(1) 우리 주변에는 큰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 예수님이 인정하는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 2018년 3월호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 이광훈 목사(콜로니얼 비치 연합감리교회, VA)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찬송의 삶

### 찬송:

28 장 (통 28 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298 장 (통 35 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380 장 (통 424 장) 나의 생명 되신 주

### 여는 질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복음성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각자 제일 좋아하는 찬송(복음성가)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 본문: 요한계시록 19:1-10

1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3 두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4 또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도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6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 본문 이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는 늘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새 노래를 그 입술에 주셨기에 늘 기쁨으로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천국 찬양대의 찬송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1-2 절). 여기에 나오는 큰 음녀는 당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로마제국을 상징합니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세상 권세를 가리키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제국을 심판하시고 순교의 피를 뿌린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늘의 무수한 성도들이 '할렐루야' 외쳐 불렀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고 했습니다(3 절). 하나님께서 이 음녀를 불로 심판하심으로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 받았을 때에 옹기점 연기같이 올라가듯이 그 연기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4 절). 이십사 장로는 지구상의 전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그룹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목소리를 합하여 '아멘, 할렐루야!' 했더니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5 절).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이 말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은 성도들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천국의 찬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6 절). 마치 할렐루야 찬송 소리가 폭포소리 와도 같고 우렛소리와도 같이 우렁차게 들렸습니다. 9 절을 보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감격에 겨워 천사의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배할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찬송하고 엎드려 절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 말씀 속으로

(1) 본문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총 몇 번 나오니까? 그리고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총 네 번 나옵니다. 1절, 3절, 4절, 6절.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찬송하라!" 입니다.)

(2)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옷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 삶 속으로

(1) 찬송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평소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집에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신앙생활은 곧 찬송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 그리고 말씀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의 주된 요소입니다. 고로, 찬송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찬송은 무슨 세상의 유행가나 멋진 가곡과 같은 종류의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의 노래입니다. 비록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지만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2) 당신은 주로 어떤 경우에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찬송이 주는 주된 유익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찬송은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송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불평과 원망, 불만족을 물리치게 합니다. 때로 어려운 일로 인해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생길 때마다 찬송을 힘차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암송 구절:** 요한계시록 19:7-8(한 주간 동안 암송구절을 암기하신 후, 다음 모임에서 서로 확인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자녀와 나눔**(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소그룹 나눔을 진행하시면서 나눌 수 있는 질문입니다.)

(1) 가장 좋아하는 찬송(복음성가)은 무엇이며 그것을 왜 가장 좋아하나요?

(2)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찬송)들이 다른 노래들과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나요?